



# 파워풀 대구! \_\_\_\_\_ 함께 뛰는 장애인체육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대구가 명실상부 장애인스포츠의 메카이자 중심지라고 말한다. 전국 시도 장애인체육회 중 최초로 설립된 이래 수많은 생활체육인과 전문선수를 발굴하며 영광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오늘을 만났다.

글. 박재림 사진. 안용길



##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건물 맞은편에는 체육회의 지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이 자리해 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 보치아 종목 김광식 선수의 메달부터 2016년 리우 패럴림픽 탁구 종목 차수용 선수의 은메달까지. 모두가 대구 장애인체육인의 힘으로 일궈온 자산이다. 이처럼 장애인체육회 설립 이전부터 대구시는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여럿 배출하며 본격적인 장애인체육 부흥을 꿈꿔왔다. 2004년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 자발적인 가두행진을 시작 2006년 전국 최초로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지역 내 장애인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중 최초로 설립된 저희 체육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여러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열린 대구시장기 전국좌식배구선수권대회는 내년 30주년을 바라보고 있지요. 이 외에도 농아인 볼링, 보치아 등 여러 전국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며 대한민국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홍영숙 사무처장의 말처럼 지역의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앞장서는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2019년 대구 시내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을 망라한 장애인체육 거점인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전문 체육인은 물론 생활체육인이거나 누구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 사람과 역량을 잇는 체육회의 비전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체육인 후원조직, 즉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꾸려진 후원단은 체육회의 든든한 서포터즈이자 홍보대사 역할을 하며,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우수 선수를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20여 명 남짓으로 시작한 지원단에는 2023년 현재 144명이 함께하고 있으며, 후원금 역시 매년 최대 금액을 갱신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이와 같은 후원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장애인체육인의 기량 향상과 전문체육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활동이 스포츠클럽 사업이다.

“스포츠클럽 사업을 통해 조정과 육상, 역도에 걸쳐 세 명의 전문지도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신인선수를 발굴하고 해당 종목 선수의 기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신인선수가 발굴되었으며, 기존 선수의 기량 역시 눈에 띄게 향상했습니다. 물론 세 개 종목 외 11개 종목에 스포츠용품 지원, 훈련 수당 지급, 훈련장 임대료 지원 등 운영 고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전문체육의 고도화를 꿈꾸다

11월에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도 한창이다. 전문체육을 담당하는 최재혁 팀장은 실업팀 선수의 기량 확대를 위해 안정적 훈련 인프라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23개 가맹단체를 운영하여 종목별 세분화 된 장애인체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 확보와 기타 사업 진행 등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동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내 여섯 개의 장애인실업팀 운영과 탁구와 휠체어농구, 휠체어테니스, 수영 등 지역 공공기관·지자체와 장애인체육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여 체육인들이 직업인으로서 안정적으로 훈련과 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의 활성화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때 완성된다. 체육회의 오랜 역사와 지원단의 든든한 후원이 만나 대구 내 장애인 생활체육이 곳곳에 깃들고, 그 안에서 훌륭한 기량을 갖춘 전문체육인이 늘어간다.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그려갈 빛나는 내일을 응원한다.

Mini Interview



홍영숙 사무처장

### 파워풀 장애인체육회의 힘!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지도 어느덧 8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기간 선수생활을 하며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장애인체육의 파장을 더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재경 관리부장

### 도전의 역사를 써나갑니다.

대구에는 최초의 기록이 많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나 주변 협조 등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대구 시민과 지자체 모두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무수한 최초를 완성하며 계속해 대구를 빛내겠습니다!



류동군 전문체육팀 주임

### 최고의 기량을 이끌겠습니다.

전문체육팀은 앞으로 다가올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총 22개 종목에 출전을 준비 중이며 선발전을 마치고 현재 훈련이 한창인데요. 우리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하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총무팀 주임

###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합니다.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최초의 지원단 운영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후원인이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명한 운영에 힘쓰고 소외된 종목을 활성화하며, 더 많은 선수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태현 전문체육팀 주임

### 금메달의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현재 대구도 시개발공사 배드민턴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 선수들은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선수들이 이번 항저우 대회를 넘어 내년 파리 패럴림픽에서 기량을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 생활체육팀 주임

### 종목 발굴로 생활체육 활성화 이룬다.

대구 지역 곳곳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쇼다운과 같은 새로운 종목을 지역에 소개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한계를 넘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여 더욱 활기찬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 제주의 푸른 바다를 누비다 2023년 장애인스킨스쿠버 캠프 현장



2023년 장애인스킨스쿠버 캠프 현장 영상 바로가기



제주 외돌개섬 앞바다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전국 장애인 체육회 중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스킨스쿠버 캠프 참가자들이다. 수영장도 아닌 제주의 거친 바다를 마주한 참가자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가득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3기 교육생은 4명. 여기에 1기와 2기 교육생 5명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려고 다시 참가했다. 3기까지 교육생 총 15명 가운데 라이선스를 취득한 교육생은 5명이다. 도현욱 세계수중연맹(CMAS) 트레이너가 캠프 트레이너를 맡았다.

“수중 활동은 저항이나 부력 때문에 장애인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무거운 장비를 메고 진행되는 활동이라 제약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각 및 청각, 지체 등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캠프를 마쳤습니다. 비장애인도 경험하기 힘든 새로운 종목에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도현욱 트레이너

장애인 대상 스킨스쿠버 자격증 ‘오픈워터’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최초다. 캠프 전 이론 수업을 거친 참가자들은 두류 잠수풀에서 실습을 진행했고, 제주에서 마지막 코스를 밟아 라이선스를 취득한다. 장애인 수중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어려움도 많았다. “오랜 역사를 가진 체육회인 만큼 모범이 될만한 첫 시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힘쓰는 장애인체육인을 위해 한계를 깨고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앞서간 길이 다른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 이재경 관리부장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꾸준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제주도 장애인체육회와 스킨스쿠버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그렇게 대구를 넘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누구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스킨스쿠버를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